



 국토교통부		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	 DONG-GU DISTRICT 대전광역시 동구	<h1>보도자료</h1>	
				배포일시	2020.12.4(금) / 총6매
담당부서	국토교통부	공공택지 개발과	담당자	• 과장 김철기, 사무관 이태진, 주무관 임현수 • ☎ (044) 201-4443, 4550	
		도심 재생과		• 과장 박상민, 사무관 홍근훈, 주무관 김광영 • ☎ (044) 201-4935, 4931	
	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			• 과장 김종명, 팀장 유민호, 주무관 송창현 • ☎ (042) 270-6290, 6291	
	대전시 동구 혁신도시과			• 과장 김영섭, 팀장 금병수, 주무관 이교진 • ☎ (042) 251-6692, 6693	
보도일시			2020년 12월 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6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낙후되었던 쪽방촌이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재탄생

### - 공공주택 등 1.4천호 공급, 도시재생 연계로 구도심 경제 활성화 -

- 대전역 인근 쪽방촌 밀집지역을 전면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이 ‘先이주 善순환’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대전광역시(시장 허태정), 동구(구청장 황인호)는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(12.7일 고시) 한다고 밝혔다.

< 위치도 >	< 지구 현황 >
	▶ (위치) 대전시 동구 대전역 인근 ▶ (면적) 약 2.7만 m <sup>2</sup> ▶ (용도지역) 일반상업지역, 일반공업지역 ▶ (공급호수) 공공주택 등 1.4천호

- 대전역 쪽방촌은 현재 약 170여 명이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, 10만 원대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, 냉·난방 등이 취약하고 화장실 및 취사시설이 없어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.
- 이에, 국토부와 대전시는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이 일대를 정비하고, 쪽방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쪽방촌 정비방안을 지난 4월 22일에 발표한 바 있다.

- 정비방안 발표 이후 주민 공람, 관계기관 협의,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.

## 1. 대전역 쪽방촌 정비 계획

- 대전역 인근 쪽방밀집지역(1.5만㎡)과 철도부지(1.2만㎡)를 포함하여 약 2.7만㎡ 면적을 대상으로 대전동구·LH·대전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총 1.4천호의 주택과 업무복합용지 등을 공급한다.
- 쪽방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250호와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인 대전드림타운 450호 이외에 지구 내 건물 소유주, 거주자 등을 위한 분양주택 700호를 공급한다.

< 토지이용구상(안) >



\* 지구계획 수립 등으로 토지이용구상은 조정 가능

- 쪽방 주민들이 재정착하게 될 주택단지에는 주민들의 심리치료와 직업교육·자활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 센터와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·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 시설(벤엘의 집 등)도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.

- 또한, 공공주택 단지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터, 공공도서관 등 생활 SOC 사업도 병행 추진되며, 사업부지내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LH 희망상가\*도 운영할 계획이다.

\* LH 임대주택내 청년·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(시세 50%~80% 이하)로 임대하는 상업시설



## 2. '선(先)이주 선(善)순환'의 쪽방주민 이주대책

-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인근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숙박시설 임차 등을 통해 쪽방 주민들을 위한 임시이주공간을 마련한다.
- 기존공동체 유지를 위한 돌봄·자활 등 복지서비스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.
-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쪽방주민들은 임시이주지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봄·자활 시설 등과 함께 재정착하게 된다.



### 3. 도시재생을 통한 대전역 주변 구도심 활성화

- 한편,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포함한 대전역 원도심 기능 회복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\*도 동시에 추진된다.

\* '20.9.1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('21~'25년, 5년간)

- 대전역 일원은 경부선 개통과 함께 철도 여객과 화물 수송의 요충지로서 상권이 발달되었으나, 신 도심지 개발과 주요 공공 시설 이전 등으로 쇠퇴를 거듭하여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.
- 이러한 대전역 원도심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.
- 우선, 경제 활력도 제고를 위해 창업공간, 어울림마당 및 지역문화관광거점 등 앵커시설과 한의약 특화거리를 조성한다.
- 창업 새싹기업(스타트업)을 위해 코워킹스페이스, 공유오피스, 팝업 스토어 등 특화공간을 구성한다.
- 또한,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상생협력상가, 커뮤니티 플랫폼, 문화마당 등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.
- 한의원·한약방·탕제원 등 100여개의 관련 업소가 밀집한 한의약 특화거리에는 VR·AR 관광자원 체험관과 한의약 전시관, 한방카페 등이 입지한 지역문화관광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이러한 거점공간에서는 창업 교육·컨설팅과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되어 시너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행자 우선 안전거리(안전보안등, CCTV, 안심비상벨 등)와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통학로(과속방지,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포장 등)를 조성할 계획이다.



- 이외에도 부처협업, 지자체 시행, 공공기관 투자 등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효과 제고도 도모한다.
- 사업지구 내에 대전역 관광자원화사업(문화체육관광부)과 도시계획도로 개설(대전시)을 연계하고,
- 철도 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원, 코레일 자회사 등 산재해 있던 철도산업 핵심시설을 집약한 철도산업복합클러스터(한국철도공사)를 조성하고, 주상복합 및 상업·업무시설 부지 조성(LH)을 통해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.
- 대전시와 LH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, 특별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계획이다.

#### 4. 향후계획

- 앞으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'21년에는 설계공모,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, 효율적 단지 배치를 담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, '22년에는 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.
- 지구계획 수립 착수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통한 보상 절차도 진행하여 토지주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, 지구 내 자영업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등을 제공해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- 이러한 과정에 국토부, 대전시, 대전 동구, LH, 대전도시공사, 민간 돌봄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·관·공 전담조직(TF)을 운영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쪽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<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(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) >



-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개발과 김철기 과장은 “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되고,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환경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공택지개발과 이태진 사무관(☎044-201-4443), 도심재생과 홍근훈 사무관(☎044-201-493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